■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84.
http://doi.org/10.17948/kcs.2021..92.41

【특집: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

# 『만독사전』(2007)의 만주어 혼성어 분석 오류 고찰*
##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남향림(南香林)** · 문현수(文玄洙)*** · 고경재(高庚在)****

목 차

1. 머리말
2. 만주어의 혼성어
3. 혼성어 분석 오류 유형(1): 형성어 누락
4. 혼성어 분석 오류 유형(2): 잘못된 형성어 제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만독사전』(2007)에 혼성어로 분류한 표제어들을 모두 검토하여 분석 오류로 생각되는 혼성어의 목록과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정밀한 만주어 혼성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분석 오류는 대체로 그 형성어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와 잘못된 형성어를 제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형성어 일부를 누락한 오류는 한어 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8089).
** 제1저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공동연구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연구원.

성어 일부를 누락한 경우와 만주어 형성어 일부를 누락한 경우,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 모두를 누락한 경우로 나뉜다. 한어 형성어를 누락한 경우는 'tildargan'을 '題肩+baldargan'이 아니라 '題+baldargan'로 분석한 것과 같이 2자 한어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을 1자 한어로만 분석한 경우가 많고, 만주어 형성어를 누락한 경우는 'gungkeri'를 'gu+šungkeri ilha'가 아니라 'gu+šungkeri'로 분석한 것과 같이 구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단어로 분석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또 한어와 만주어 형성어를 모두 누락한 경우는 'furhun'과 같이 '鶝鴒+indahūn cecike'가 아니라 '鶝+indahūn'로 분석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잘못된 형성어를 제시한 경우는 한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와 만주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lorin'은 '騾+morin'가 아니라 '驢+morin'로, 'danggiri'는 '鐺+kanggiri'가 아니라 '鐺+conggiri'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분석은 형성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소리의 유사성만을 우선시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혼성어와 그 형성어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올바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제어: 만주어 혼성어, 『만독사전』(2007), 오분석,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 형성어.

## 1. 머리말

'혼성(混成)'은 두 단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단한 후 이를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1]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어를 '혼성어'[2]라고 한다.[3] 『만독사전』(2007)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어

1)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 2008, 111-128면; 황진영, 「현대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노명희,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55-281면; 이찬영,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이주희, 「혼성어의 특징에 대한 재고」.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6, 한국음운론학회, 2020, 127-158면.

2)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혼성(blending)'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종(異種)의 단어를 대상으로 한 복합어와, 절단(clipping)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어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혼성어를 어종의 제약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절단하여 형태적 축소를 거친 후 결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단어로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와 같은 경우, 두 고유어인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절단된 후 결합하여 새로운 혼성어 '할저씨'를 형성한 경우가 있는 하면, 한자어인 '기자(記者)'와 고유어인 '쓰레기'가 절단된 후 결합하여 혼성어 '기레기'를 형성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어인 '스타벅스'와 한자어인 '역세권(驛勢圈)'이 절단된 후 결합하여 혼성어 '스세권'을 형성한 경우도 있

근과 접사가 '+' 기호를 통해 분석되어 있으며, 혼성어의 경우에도 그 기원이 되는 형성어가 '+' 기호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 기호가 있는 표제어 가운데 혼성어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추려내면 만주어 혼성어의 전체 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4)]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뜻풀이를 참고하되, 만주어에 대한 편찬자의 언어 내적·외적 지식[5)]도 분석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 편찬자의 판단 착오로 인해 혼성어 분석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고에서는 『만독사전』(2007)에 혼성어로 분류한 표제어들을 모두 검토하여 분석 오류로 생각되는 혼성어의 목록을 제시하는 한편,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혼성어 뜻풀이와 언어 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만주어 혼성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만주어의 혼성어

---

다. 이 밖에 본 고에서는 혼성어의 형성어를 '구'로도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인 형태적 특징은 추후의 '만주어 혼성어'에 관련된 논문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그동안 혼성어 논의에서 다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혼성어와 합성어의 구별과 관련된 문제였다. 사실 혼성어와 합성어는 어근의 자격을 갖는 두 요소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리하여 혼성어를 합성어의 일부로 다루는 논의도 있어 왔다. 예컨대 Fromkin & Rodman(1993, 56-57)에서는 혼성어를 '형태가 축소된 합성어'라고 보았으며, 노명희,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 국립국어연구원, 2006, 43면; 「외래어 단어 형성」,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24-25면에서도 혼성을 '합성의 한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합성어가 형성될 때에는 결합하는 두 단어의 형태가 유지됨에 비해, 혼성어가 형성될 때에는 결합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형식적인 감소를 거쳐 결합하기 때문에, 합성어와 혼성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합성어는 '꽃밭'에서 볼 수 있듯이 어근 '꽃'과 '밭'이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결합하지만, 혼성어는 '액티즌'에서 볼 수 있듯이 '액션(action)'과 '시티즌(citizen)'에서 각각 절단이 일어나 결합된다.

4) 이훈,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에서도 합성어와 파생어의 어근과 접사, 혼성어의 형성어가 '+' 기호를 통해 분석되어 있는데, 이는 『만독사전』(2007)에서 빌려 왔다고 밝힌 바 있다.

5) 여기에서의 언어 외적 지식은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전 편찬자가 참고하였을 만한 백과사전이나 중국 옛 문헌 등을 가리킨다.

혼성어는 형성시 절단이 되는 부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혼성어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보통 선행 형성어[6]를 'AB'로, 후행 형성어를 'CD'로 표시하여 논의하는데,[7] 여기서 'AB', 'CD'는 직접구성성분으로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혼성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혼성어 유형이 존재한다.

(1) 가. 혼성어의 형성어가 모두 절단된 채로 결합
AB+CD → AD, BC, BD
나. 혼성어의 형성어 중 일부만 절단되어 결합
AB+CD → ABC, ABD, ACD, BCD

만주어 혼성어는 아래와 같이 크게 '한어(漢語)+만주어(滿洲語)', '만주어(滿洲語)+한어(漢語)', '만주어(滿洲語)+만주어(滿洲語)' 구성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1)의 다양한 유형의 혼성어 중 만주어에는 대체로 AD, ABD, ACD 유형만 존재한다.

(2) 가. šangsin: 商 + aisin
나. boihoju: boihon + 主
다. metu: menen + itu

(2가)의 'šangsin'은 오음(五音) 가운데 하나인 '商'을 뜻하는데, '商'이 오행(五行)의 '金'과 관련이 있기에 '商(shāng)'이라는 한어와 '金'을 뜻하는 만주어 'aisin'을 함께 이용하여 조어된 ABD 유형의 혼성어이다. (2나)의 'boihoju'는 '토지신'을 뜻하는데, '흙/토지'를 뜻하는 만주어 'boihon'과

6) 혼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단어에 대해 지금까지 '기저 단어, 형성 요소, 구성 요소, 형태조각, 파편(splinter)'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찬영, 앞의 글, 20면에서는 '절단'과 '결합'의 두 층위에서의 형성 요소를 각각 '형성어'와 '형성소'로 달리 지칭하였는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단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형성어'라 칭하도록 한다.

7) Ingo Plag,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2003, p.123.

'주인'을 뜻하는 한어 '主(zhǔ)'를 이용하여 조어된 ACD 유형의 혼성어이다. (2다)의 'metu'는 어리석어서 쉽게 잡히는 메추라기의 일종인 '반치(半癡)'를 뜻하는데, '어리석다'는 의미의 만주어 'menen'과 '메추라기보다 좀 크고 닭과 비슷하지만 꼬리가 짧다는 꿩과의 새 '半翅'를 뜻하는 만주어 'itu'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AD 유형의 혼성어이다.

이 밖에 만주어 혼성어는 또 선후행어의 끝음 또는 끝음절이 절단되는 경우, 즉 AC 유형이 있다. 이를테면 奇獸의 일종인 '박타[猼訑, 눈과 귀가 각기 네 개인데 눈이 허리에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dardu'의 경우 '허리'를 뜻하는 'dara'와 숫자 4의 의미를 나타내는 'duin'이 결합한 'AC'유형의 혼성어이다.[8]

한편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은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을 수정·증보하면서 '한어+만주어' 구성의 혼성어, '만주어+한어' 구성의 혼성어, '만주어+만주어' 구성의 혼성어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9] 이들은 만주어에 없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에 수록된 혼성어에 대해서는 김양진(2016)과 최계영(2017)에서 다룬 바 있다.[10] 이 논의들에서는 『어제증정청문감』에 수록된 혼성어가 어떠한 조어 방식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소개하고

8) 물론 이때의 'AC'형은 두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을 취하여 만든 '두음절어'와는 다른 개념이다. 비록 '두음절어'도 혼성어와 마찬가지로 형태적 축소 과정을 거친 후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지만, 축소 이전의 형성어와 '두음절어' 사이에는 의미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특정 음절이 절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몰카'와 같이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되어 절단된다. 반면에 본고에서 논의한 만주어 'AC' 유형의 혼성어는 형성어와 혼성어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일어나며 절단되는 음절은 형성어의 내부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끝 음만 탈락되거나 첫 음만 남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星(xīng)+morin(말)→simori(南方 7宿의 넷째 宿)'과 같이 앞 뒤 두 형성어의 비음부분이 절단된 후 결합하여 새로운 혼성어를 형성한 경우이고, 'ajige(작다)+simhun(손가락)→ajisi(猴總子, 크기는 새끼손가락 정도이고 맛은 감과 비슷한 奇果)'와 같이 앞 형성어의 끝음이 절단되고 뒷 형성어는 첫 음만 남겨지고 절단되어 형성된 'AC' 유형의 혼성어이다.

9) '한어+만주어'구성의 혼성어로는 'gunghun(宮+boihon)'과 같은 단어가 있고, '만주어+한어'구성의 혼성어로는 'ilihen(iliha+艮)'과 같은 단어가 있으며, '만주어+한어' 구성의 혼성어로는 'ebšu(eberi+mušu)'와 같은 단어가 있다.

10) 김양진, 「만주어사전 『어제청문감 (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33-66면; 최계영, 「『御製增訂淸文鑑』 신규 표제어 연구」, 『알타이학보』 27, 한국알타이학회, 2017, 25-50면.

있지만, 일부 혼성어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통해 만주어 혼성어의 전체 목록과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서도 만주어 혼성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安雙成(1999:179)에서는 혼성의 조어 방식을 縮寫法이라고 부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縮寫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조어법의 한 종류로 다루고 있다.[11] 胡增益(2004:38)에서는 혼성어를 縮合詞라고 부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각각 축약된 후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정의하면서 『만독사전』(1952-1955)에 나타나는 만주어 혼성어를 기반으로 그 음운론적 특징과 의미론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12] 하지만 『만독사전』의 혼성어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그 특징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杜佳烜・唐千航(2021:31)에서는 截搭詞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혼성의 조어 방식을 단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된 후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는 형태 과정으로 보았다.[13] 또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에 수록된 혼성어를 기반으로 그 판별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天文〉, 〈樂器〉, 〈器用〉과 〈人倫〉 등에 나타나는 혼성어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고 혼성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補編〉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14]

『만독사전』(2007)은 Erich Hauer의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1955)를 수정·보완하여 편찬된 것으로,[15] 『청문휘서

11) 安雙成, 「滿語構詞法」, 『알타이학보』 9, 한국알타이학회, 1999, 179면.
12) 胡增益, 「滿語縮合詞研究」, 『民族語文』 3, 2004, 38면.
13) 杜佳烜·唐千航, 「滿語截搭構詞法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 2021, 31면.
14) 이 밖에도 김동소, 「錫伯族 言語 研究 序說」, 『알타이 학보』 6, 한국알타이학회, 1996에서는 시버어의 혼성어에 대해서 일부 다루었다.
15) 본고에서는 Hauer, E.,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uflage, herausgegeben von Oliver Corff, Wiesbaden: Harrassowitz. 2007을 『만독사전』(2007)로 칭한다. Hauer, E.,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Otto Harrassowitz, 1952-1955에서의 여러 오류들, 이를테면 모음 표기 오류, 철자상의 오류, 표제어 배열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였으며, Walravens, H., "Zu zwei Katechismen in mandjurischer Sprache", *Monum.enta scrica* Vol.XXXI, No.19, 1977, pp.521-549; *Buddhist Literature of the Manchus, A catalogue of the Manchu holdings in the Raghu Vira Collection at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The Academy, 1981; Vira, R. ed., *A Pentaglot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in Sanskrit, Tibetan, Manchurian, Mongolian*

(淸文彙書)』,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 『대청전서(大淸全書)』, 『청문계몽(淸文啓蒙)』, 『삼합편람(三合便覽)』 등 다양한 만주어 자료를 검토하여 편찬된 것으로, 이후의 만주어 사전 편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전에는 혼성어의 경우 그 기원이 되는 형성어가 '+' 기호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 만주어 혼성어의 전체 목록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성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만독사전』(2007)에는 혼성어의 분석이 무엇을 참고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그렇지만 최계영(2017:37)의 언급처럼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에 수록된 혼성어의 뜻풀이에는 조어에 이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뜻풀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어 외적의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16] 따라서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뜻풀이를 참고하되, 만주어에 대한 편찬자의 언어 외적 지식도 분석의 근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경우 편찬자의 판단 착오로 인해 혼성어 분석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독사전』(2007)에 제시된 혼성어는 총 600여 개인데, 본고의 검토 결과 오분석된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는 〈표 1〉과 같이 총 43개가 존재하였다.[17]

〈표 1〉 만주어 혼성어 분석 오류 표제어 목록

---

*and Chinese,*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61 등을 참고하여 기존 사전에 없는 표제어 약 1200개를 추가하였다.

16) 최계영, 앞의 글, 37면.

17) 본고에서는 『어제증정청문감』에 수록된 혼성어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혼성어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어제증정청문감』에 수록되지 않은 혼성어, 예컨대 'jursi(氷片): juru+farsi[잘못된 만주어 형성어 제시]', 'bekto(貝母): 貝+okto[한어 형성어 누락]' 등의 오류 분석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 | | | | | |
|---|---|---|---|---|---|
| 만주어 혼성어 분석 오류 | 형성어 누락 | 한어 형성어 누락 | tildargan, nuhasi, hojiko, gerdung, marimbu, pilgican, tušahū, utan, totan, tinggu, biyanggidei, gingguhe, lingsika, jecehen, morho, jefohon, farudai, irudai, surudai, yurudai, girudai, tarfu | 22개 | 43개 |
| | | 만주어 형성어 누락 | gungkeri, mungkeri, juturi, nituri, niojan, musiha, irmu, | 7개 | |
| | |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 누락 | furhun, furhūn, niyamju | 3개 | |
| | 잘못된 형성어 제시 | 잘못된 한어 형성어 제시 | lorin | 1개 | |
| | | 잘못된만주어 형성어 제시 | danggiri, tanggiri, longkon, meisile, dekdenggi, šositun, junggisun, jungguhe, yarhacan, jušutu, | 10개 | |

이 분석 오류는 크게 형성어 누락과 잘못된 형성어 제시로 나눌 수 있다.[18] 이 중 누락 오류는 다시 한어 형성어 누락, 만주어 형성어 누락, 한어 및 만주어 누락으로 나뉘고, 잘못된 형성어 제시는 잘못된 한어 형성어 제시, 잘못된 만주어 형성어 제시로 나뉜다.

아래의 3장과 4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분석 오류에 대하여 형성어 누락과 잘못된 형성어 제시의 관점에서 각각 나누어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8) 형성어 누락 오류는 형성어의 일부를 누락하여 제시한 경우를 말하고, 잘못된 형성어 제시는 형태적이나 음성적으로 유사한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 3. 혼성어 분석 오류 유형(1): 형성어 누락

### 1) 한어 형성어 누락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의 한어 형성어를 1자 한자어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1자 한자어가 아니라 1자 한자어를 포함한 2자 또는 3자 한자어로 분석해야 혼성어 조어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에 형성어의 형태적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자 또는 3자 한자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kundujin(孔雀)'는 '孔都護(kǒngdōuhù)+tojin(공작새)'로 분석하였고, 'pipuri(비파)'는 '枇杷(pípá)+turi(콩)'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다음 〈표 1〉에서 제시된 혼성와 같이 형성어의 형태적 흔적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1자 한자로만 분석하였다.

〈표 2〉『만독사전』(2007) 의 한어 형성어 누락 표제어 목록 및 형성어

| 표제어 | 『만독사전』(2007)의 분석 | 본고의 분석 |
|---|---|---|
| tildargan (새매) | 題+baldargan | 題肩+baldargan |
| nuhasi (코뿔소) | 奴+ihasi | 奴角+ihasi |
| hojiko (닭의 별명) | 會+coko | 會稽+coko |
| gerdung (辣辣의 별명) | 耩+durdung | 耩子+durdung |
| marimbu (마노) | 瑪+erimbu | 瑪瑙+erimbu |
| pilgican (물오리) | 鵯+hūlgican | 鵯鵜+hūlgican |
| tušahū (올빼미) | 土+hūšahū | 土梟+hūšahū |
| utan (사다새) | 鵚+kūtan | 鵚鶘+kūtan |
| totan (사다새) | 淘+kūtan | 淘鶖+kūtan |
| tinggu (제호) | 提+ninggu | 提壺+ninggu |
| biyanggidei (산계) | 蠛+yanggidei | 蠛蜨+yanggidei |
| gingguhe (앵무새) | 乾+yengguhe | 乾鸉+yengguhe |
| lingsika (호랑이의 별명) | 李+tangsika | 李耳+tangsika |
| jecehen (제건) | 諸+uncehen | 諸犍+uncehen |
| morho (목숙) | 苜+orho | 苜蓿+orho |

| jefohon (유자와 비슷한 과일) | 蔗+jofohon | 蔗子+jofohon |
|---|---|---|
| farudai (東方의 鳳) | 發+garudai | 發明+garudai |
| irudai (北方의 鳳) | 幽+garudai | 幽昌+garudai |
| surudai (西方의 鳳) | 肅+garudai | 鸕鷀+garudai |
| yurudai (中央의 鳳) | 玉+garudai | 玉雀+garudai |
| girudai (南方의 鳳) | 미분석 | 焦明+garudai |
| tarfu (호랑이의 별명) | targan+父 | targan+李父 |

〈표 2〉는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가운데 한어 형성어가 누락된 표제어에 대하여 본고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표제어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tildargan(題肩/題鵳, 새매)
가. 『만독사전』(2007) : 題 + baldargan(靑鵳)
나. 『어제증정청문감』: tildargan
baldargan i encu gebu. hiyebele i adali bime ajige.
〈권S4:09b〉
(조롱태(靑鵳)의 다른 이름이다. 솔개와 닮았으나 작다.)
다. 『漢語大辭典』: 題肩
鳥名. 鷂鷹的一種.
(새 이름이다. '鷂鷹[새매]'의 일종이다.)
라. 題鵳 + baldargan(靑鵳, 조롱태)

『만독사전』(2007)에서는 'tildargan'을 '題+baldargan'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題'의 사전적 의미는 '額[이마], 頭[머리], 書題[제목]'으로, 왜 '題'가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3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새매의 일종인 조롱태를 나타내는 '題肩'가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혼성어 'tildargan'은 (3라)와 같이 한어 '題肩'과 만주어 'baldargan'으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4) nuhasi(奴角, 코뿔소)
가. 『만독사전』(2007) : 奴 + ihasi(코뿔소)

나. 『어제증정청문감』: nuhasi
ihasi i encu gebu. 〈권S4:35a〉
(코뿔소(犀牛)의 다른 이름이다.)
다. 『漢語大辭典』: 奴角[19]
犀牛的別名.
(코뿔소의 별명이다.)
라. 奴角 + ihasi(코뿔소)

'nuhasi'는 『만독사전』(2007) 에서 '奴+ihasi'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예'의 의미를 나타내는 1자 한자어 '奴'가 왜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4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뿔소의 별칭'이라는 의미를 갖는 '奴角'이 혼성어의 형성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혼성어 'nuhasi'는 한어 '奴角'과 만주어 'ihasi'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해야 한다.

(5) hojiko(會稽公. 닭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 會 + coko(닭)
나. 『어제증정청문감』: hojiko
coko i encu gebu. 〈권S4:61b〉
(닭의 다른 이름이다.)
다. 『事物異名錄』[20]: 翰音, 禮記雞曰翰音 … 袁淑,雞九錫文, 咨爾浚雞封君爲會稽公,又困學紀聞作浚稽山子[21].
(한음(翰音),『예기(禮記)』에서 雞[닭]을 한음(翰音)이라 부른다. 원숙(袁淑)의 『계구석문(雞九錫文)』에서 준계(浚雞)를 회계공(會稽公)으로 봉하였고, 또 『困學紀聞』에서는 준계(浚雞)를 계산자(稽山子)라 한다.)
라. 會稽公 + coko(닭)

19) 『酉陽雜俎』: "犀牛, 一名奴角.(서우(犀牛),일명 누각(奴角)이다.)" 해당 용례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를 참고하였다.
20) 『事物異名錄』은 淸대의 여전(厲荃)이 지은 명록(名錄)이며 천문(天文)・세시(歲時)・형모(形貌)・품술(品術)・서적(書籍)・금조(禽鳥)・수목(樹木) 등에 대해 소개한 박물서(博物書)이다.
21) 『藝文類』: "稽山子, 雞的別稱.(계산자(稽山子), 닭의 별칭이다. )" 해당 용례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를 참고하였다.

『만독사전』(2007)에서는 'hojiko'를 '會+coko(닭)'로 분석하였으나 '會'는 '합하다'의 의미로,[22] '닭'의 별칭을 나타내는 'hojiko'의 형성어로 쓰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한편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의 〈禽鳥部〉에서는 '雞[닭]'의 이명(異名)을 여럿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회계공(會稽公)이 있다.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에서도 'hojiko'를 "coko i encu gebu. (닭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혼성어 'hojiko'의 한어 형성어는 '會'가 아니라 (5라)의 분석과 같이 '會稽公'이 되어야 한다.

(6) gerdung (耩子, 辣辣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耩 + durdung(동동, 辣辣)
  나. 『어제증정청문감』: gerdung
    durdung ni encu gebu. 〈권S4:45a〉
    (辣辣(동동)의 다른 이름이다.)
  다. 『奇字韻』: 辣辣, 今產於代州雁門穀口, 俗呼爲耩子.
    (辣辣, 지금의 대주(代州), 안문(雁門), 곡구(穀口)에 나타나며, 세속에서는 '耩子'라고 부른다.)
  라. 耩子 + durdung

『만독사전』(2007)에서는 'gerdung'을 '耩+durdung'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耩'는 '밭을 갈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어로,[23] '辣辣(동동)의 다른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gerdung'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동동(辣辣)'은 양처럼 생긴 동물인데, (6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속에서 '耩子'로도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면 'gerdung'는 '耩+durdung'이 아니라 (6라)와 같이 '耩子+durdung'로 분석되어야 한다.

(7) marimbu (瑪瑙, 마노)
  가. 『만독사전』(2007): 瑪 + erimbu(보석)
  나. 『어제증정청문감』: marimbu
    wehe wehei duwali bime nilgiyan gincihiyan. hacingga boco b

22) 『说文解字』: "會, 合也.(회(會)는 합(合)이다)."
23) 『玉篇』: "耱也.(김매다)"

i. miyamigan de baitalambi. 〈권22:51b〉
(돌과 같은 종류이고, 빛나고 화려하다. 여러 가지 색 있고 장식에 사용한다.)
다. 『廣雅』: 瑪瑙[24], 石次玉也.
(瑪瑙(마노)는 돌로, 옥(玉)의 다음이다.)
라. 玛瑙 + erimbu(보석)

『만독사전』(2007)에서는 'marimbu'를 '瑪+erimbu'로 분석하고 있지만, 한어에서 차용어 '瑪瑙'는 연면사(聯綿詞)로서,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는 단일어로 보아야 한다.[25] 따라서 혼성어 'marimbu'는 (7라)와 같이 한어 '瑪瑙'와 만주어 'erimbu'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8) pilgican (鶺鴒, 물오리).
가. 『만독사전』(2007): 鶺 + hūlgican(鶺蹄, 오리의 별명)
나. 『어제증정청문감』: pilgican
niyehe cunggur niyehe i acu gebu. 〈권S4:16b〉
(유호로[油葫蘆, 물오리의 일종]의 다른 이름이다.)
다. 『玉篇-鳥部』: 鶺鴒, 水鳥.
(鶺鴒(벽제)는 곧 물새이다.)
라. 鶺鴒 + hūlgican(鶺蹄, 오리의 별명)

혼성어 'pilgican'는 『만독사전』(2007)에서 '鶺+hūlgican'로 분석하였다. 한편 『說文解字注』에서는 "鶺鴒也. 按單呼曰鴒. 絫呼曰鶺鴒. (벽제(鶺鴒)는 단독으로 부르면 제(鴒)이고, 겹쳐서 부르면 벽제(鶺鴒)이다.)"라고 설명하였다.[26] 따라서 우리는 '물오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어는 '鴒' 또는 '鶺鴒'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제증정청문감』에서 표제어 'pilgican niyehe'

24) 『瑪瑙勒賦』: "瑪瑙, 玉屬也. 出自西域.(瑪瑙(마노)는 옥과에 속하며 서역에서 나왔다.) 해당 용례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를 참고하였다.
25) 연면사(聯綿詞)는 일반적으로 두 음절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연면사(聯綿詞)는 두 음절을 갈라놓을 수 없다. 연면사를 다시 쌍성(雙聲)과 첩운(疊韻), 비쌍성첩운(非雙聲疊韻)으로 나눌 수 있으며 '瑪瑙'는 비쌍성첩운(非雙聲疊韻) 연면사(聯綿詞)에 속한다.
26) '鶺'은 '鵴'의 이체자이고, '鴒'는 '鴒'의 이체자이다.

의 뜻풀이는 “cunggur niyehe i acu gebu.(유호로[油葫蘆, 물오리의 일종]의 다른 이름이다.)”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물오리’라는 의미의 혼성어 ‘pilgican’의 선행어는 1자 한자어 ‘鶣’가 아니라 2자 한자어 ‘鶣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tušahū (土梟, 올빼미)
가. 『만독사전』(2007): 土 + hūšahū(부엉이)
나. 『어제증정청문감』: tušahū
hūšahū i duwali. 〈권S4:11a〉
(부엉이와 동류이다.)
다. 『漢語大辭典』: 土梟[27]: 梟的異名.
(올빼미의 다른 이름이다. )
라. 土梟 + hūšahū(부엉이)

『만독사전』(2007)에서는 ‘tušahū’를 ‘土+hūšahū’로 분석하였으나 ‘흙’의 의미를 나타내는 1자 한자어 ‘土’가 왜 이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아(爾雅)』의 〈석조(釋鳥)〉편에서는 “梟, 鴟.(효(梟)는 치(鴟, 올빼미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곽박(郭璞)은 “土梟.(토효이다).”라고 주(注)를 달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梟(효)’와 ‘土梟(토효)’는 모두 올빼미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혼성어 ‘tušahū’의 선행 형성어는 1자 한자어 ‘土’가 아니라 2자 한자어 ‘土梟’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10) utan (鴳鶉, 사다새).
가. 『만독사전』(2007): 鴳 + kūtan (淘河. 사다새)
나. 『어제증정청문감』: utan
kūtan i encu gebu. ajige omo de feniyeleme dofi konggolo i muke be juweme fabufi. nimaha be baime jembi. 〈권S4:08a〉
(사다새의 다른 이름이다. 작은 못에 무리 지어 앉아서 모이주머니로

27) 『尔雅』: “土梟,穴土以居,故曰土梟. (‘土梟(토효)’는,穴土[혈토, 땅굴]에서 살기 때문에 ‘土梟(토효)’라고 부른다. )”

물을 날라 말려서 물고기를 구하여 먹는다. )

다. 『爾雅』: 鵜, 鴮鸅.
(鵜는 鴮鸅이다.)

라. 鴮鸅 + kūtan (淘河. 사다새)

『만독사전』(2007)에서는 'utan'을 '鴮+kūtan'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아(爾雅)』의 〈석조(釋鳥)〉편에서는 "鵜, 鴮鸅.('제(鵜)'는 '오택(鴮鸅)'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곽박(郭璞)의 注에서는 "今之鵜鶘也. 好群飛, 沈水食魚, 故名洿澤(鴮鸅). 俗呼之爲淘河.(지금의 '제호(鵜鶘)'이다. 떼지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먹으므로 '오택(鴮鸅)'이라 한다. 세속에서 '도하(淘河)'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鵜'와 '鴮鸅', '淘河'는 모두 동일 동물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성어 'utan'의 선행 요소는 '鴮'가 아니라 '鴮鸅'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1) totan 淘鵞.(사다새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淘 + kūtan(淘河. 사다새)

나. 『어제증정청문감』: totan
kūtan i encu gebu. erei nimenggi giranggi umhan de hafuname muteme ofi kemuni okto de acabufi nimeku be d asara de baitalambi. 〈권S4:07b〉
(사다새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의 기름과 뼈와 알은 침투성이 좋아서 언제나 약에 맞추어서 병을 다스리는 데에 쓴다. )

다. 『本草綱目』: 鵜鶘即淘鵞. 鵜鶘處處有之, 水鳥也. 似鶚而甚大, 灰色如蒼鵝. 俚人食其肉, 取其脂入藥.
(제호(鵜鶘)는 곧 도아(淘鵞)이다. 제호(鵜鶘)는 곳곳에 있으며 물새이다. 악(鶚,물수리)과 비슷하고, 매우 크며 창아(蒼鵝)와 같이 회색이다. 이인(俚人)은 그것의 고기를 먹고 그 기름을 취하여 약으로 사용한다. )

라. 淘鵞 + kūtan(淘河. 사다새)

『만독사전』(2007)에서는 'totan'을 '淘+kūtan'으로 분석하였으나, '淘'는 '쌀을 일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된 원인을 알 수 없다. 오히려 (11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otan의

선행어는 '淘鶖'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淘鶖'는 '鵜鶘'와 같은 사다새과의 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혼성어 'totan'는 한어 '淘鶖'와 만주어 'kūtan'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12) tinggu/tinggu cecike (提壺. 사다새)
가. 『만독사전』(2007): 提 + ninggu(위, 윗녘, 윗부분, 윗머리)
나. 『어제증정청문감』: tinggu cecike
beye sahahūkan. huru asha de ser sere šanyan alha suwaliyag anjahabi. 〈권30:33b〉
(몸은 옅은 검은 색인데, 등과 날개에 작은 흰 무늬가 섞였다.)
다. 『漢語大辭典』: 提壺[28], 亦作 "提胡蘆". 鳥名. 即鵜鶘.
(또 '提胡蘆'라고도 적으며 새이름이다. 즉 '鵜鶘(제호)'이다.)
라. 提壺 + ninggu(위, 윗녘, 윗부분, 윗머리)

『만독사전』(2007)에서는 'tinggu'를 '提+ninggu'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提'는 '挈[들다]'라는 의미로 혼성어 'tinggu'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12다)처럼 새와 관련된 의미를 갖는 '提壺'가 한어 형성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성어 'tinggu'는 한어 '提壺'와 만주어 'ninggu'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13) biyanggidei (蠛蜓. 산계)
가. 『만독사전』(2007): 蠛 + yanggidei(華蟲, 꿩)
나. 『어제증정청문감』: biyanggidei
junggiri coko i encu gebu. 〈권S4:43a〉
(금계(錦雞)의 다른 이름이다.)
다. 『蜀都賦』: 蠛蜓, 鳥名也,如今之山雞.
(별이(蠛蜓), 새의 이름이다. 지금의 산계(山雞)와 같다.)
라. 蠛蜓 + yanggidei(華蟲, 꿩)

『만독사전』(2007)에서는 'biyanggidei'를 '蠛+yanggidei'로 분석하고 있

28) 문헌 기록에서도 '사다새'를 뜻하는 의미로 '제호(提壺)'가 나타난 바가 있다. 湯顯祖(明) 『牡丹亭·勸農』: "提壺叫, 布穀喳."

으나 '蠞'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蜀都賦』에서는 "蠞蝭, 鳥名也, 如今之山雞.('蠞蝭(별이)', 새의 이름이다. 지금의 '山雞(산계)'와 같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蠞蝭(별이)'는 앞서 설명한 '瑪瑙(마노)'와 같이 한어에서는 연면사(聯綿詞)로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연면사(聯綿詞)는 두 음절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사용하면 개별적인 어휘에 뚜렷한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부 연면사(聯綿詞)는 두 음절이 분리 가능하며 그 중 한 음절만 단독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한 음절은 일종의 공형태소 개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蠞蝭(별이)'의 경우, 『廣韻』의 표제어 '蝭'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1자 한자 '蝭'는 "蝭, 蟲名, 又蠞蝭, 山雞也.('蝭(이)', 곤충명이다. 또 '蠞蝭(별이)'이며 '山雞(산계)'이다.)"라는 의미로 단독으로 '山雞(산계)'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별(蠞)'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통해 혼성어 'biyanggidei'가 한어 '蠞蝭'와 만주어 'yanggidei'로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4) gingguhe (乾窠. 앵무새)
  가. 『만독사전』(2007): 乾 + yengguhe (앵무새)
  나. 『어제증정청문감』: gingguhe
    yengguhe i encu gebu. 〈권S4:18a〉
    (앵무(鸚鵡)의 다른 이름이다.)
  다. 『事物異名錄』: 乾窠, 一名鸚鴿, 俗名八哥.
    (건고, 일명 앵구[鸚鴿, 앵무새와 구욕새]이며, 속명 팔가[八哥, 앵무새]이다.)
  라. 乾窠 + yengguhe (앵무새)

『만독사전』(2007)에서는 'gingguhe'를 '乾+yengguhe'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마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乾'이 왜 앵무새를 가리키는 혼성어의 형성어로 쓰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에서는 "乾窠, 一名鸚鴿, 俗名八哥.(건고, 일명 앵구[鸚鴿, 앵무새와 구욕새]이며, 속명 팔가[八哥, 앵무새]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혼성어 'gingguhe'는 (14라)처럼 1자 한자어 '乾'이 아니라 2자 한자어 '乾窠'와 만주어

‘yengguhe’로 이루어진 혼성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15) lingsika (李耳. 호랑이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李 + tangsika (酋耳)
나. 『어제증정청문감』: lingsika
tasha i encu gebu. 〈권S4:35b〉
(호랑이의 다른 이름이다.)
다. 『方言』: 虎, 陳魏宋楚之間或謂之李父, 江淮南楚之間謂之李耳, 或謂之於菟. 自關東西或謂之伯都.
(호랑이를 진(陳)과 위(魏), 송(宋), 촉(楚) 지역에서는 이부(李父)라고 부른다. 장강-회하 이남 남촉(南楚)에서는 李耳[29](이이)라고 부르고, 또는 어도(於菟)라고도 부른다. 관동, 관서지역에서는 또는 백도(伯都)라고도 부른다.
라. 李耳 + tangsika (酋耳)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혼성어 ‘lingsika’를 ‘호랑이의 다른 이름’으로 풀이하고 있다. 『만독사전』(2007)에서 이러한 의미의 ‘lingsika’를 혼성어로 판단하고 ‘李+tangsika’로 분석하였으나 ‘李’가 왜 혼성어의 한어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方言』에서는 호랑이의 여러 별칭에 대해 소개하면서 “江淮南楚之間謂之李耳(장강-회하 이남 남촉(南楚)에서는 李耳(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李耳(이이)가 호랑이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성어 ‘lingsika’는 (15라)와 같이 한어 ‘李耳’와 만주어 ‘tangsika’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16) jecehen (諸犍, 제건)
가. 『만독사전』(2007): 諸 + uncehen(꼬리)
나. 『어제증정청문감』: jecehen
cin jang šaṅ alin de tucimbi. banin yarha de adali bime. niyal

29) 『風俗通』: “呼虎爲李耳, 俗說虎本南郡中廬李氏公所化. 爲呼李耳因喜, 呼班便怒.(‘虎[호랑이]’를 ‘李耳(이이)’라고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호랑이는 원래 南郡 中廬의 李氏公이 변한 것이다. ‘李耳’라고 부르짖으면 기뻐서이고, ‘班’이라고 부르짖으면 노한 것이다.)” 해당 용례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를 참고하였다.

ma i uju. emu yasa. murara mangga uncehen golmin. deduci uncehen be hayambi. yabuci ašumbi.
〈권S4:43a〉
(단장산(單張山)에서 난다. 용모가 표범과 비슷하지만 사람의 머리에 하나의 눈이 있다. 울기를 잘 하고 꼬리가 길다. 누울 때는 꼬리를 말고 다닐 때는 꼬리를 문다. )

다. 『山海經・北山經』: 又北百八十裏, 曰單張之山, 其上無草木. 有獸焉, 其狀如豹而長尾, 人首而牛耳, 一目, 名曰諸犍, 善吒, 行則銜其尾.
(또 북쪽으로 800리 가면 단장산이다. 그 산에는 초목이 없고 獸가 있다.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꼬리가 무척 길며 사람 머리에 소의 귀가 달렸고, 눈이 하나인데 諸犍이라 부른다. 울기를 잘 하고 다닐 때는 꼬리를 문다.)

라. 諸犍 + uncehen(꼬리)

『만독사전』(2007)에서는 'jecehen'를 '諸(zhū)+uncehen'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諸'는 '모두', '여러'의 의미를 지닌 1자 한자어로 혼성어 'jecehen'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16다)처럼 '전설속에 나타나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 '諸犍'이 한어 형성어가 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혼성어 'jecehen'은 (16라)와 같이 한어 '諸犍'과 만주어 'uncehen'으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17) morho (거여목, 목숙)

가. 『만독사전』(2007): 苜(mù) + orho(여물)

나. 『어제증정청문감』: morho
orho i gebu. cikten juwe ilan jušuru den. abdaha hohonggo moo i abdaha i gese bime ajige. šušu ilha ilambi. morin ulha jembi. 〈권29:10b〉
(풀의 이름이다. 나물의 줄기는 2~3 척 높이이고, 잎은 홰나무 잎과 같이 작다. 보라색 꽃이 핀다. 마필이 먹는다.)

다. 『本草綱目』: 苜蓿, 一名牧蓿, 謂其宿根自生, 可飼牧牛馬也.
(묵숙은 일명 목숙(牧蓿)이라고도 하며, 그것은 숙근(宿根)에서 자생(自生)한다고 하고 牛馬에게 먹여 기를 수 있다.)

라. 苜蓿 + orho(여물)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morho’를 ‘苜+orho’로 분석하였는데, ‘苜’이 어떤 의미로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어제증정청문감』의 ‘morho’에 대한 풀이를 참고하면 ‘morho’는 말의 사료로 사용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史記・大宛列傳』에서는 “馬嗜苜蓿, 漢使取其來, 于是天子始種苜蓿肥饒地.(말이 ‘苜蓿(목숙)’을 좋아한다. 한나라의 사신이 그것을 갖고 왔고 천자는 ‘苜蓿(목숙)’을 심기 시작하였으며 땅에 비료를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苜蓿’은 서역에서 전해져 온 식물로 중국 본토의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苜蓿(목숙)’[30] 역시 차용어로 연면사(聯綿詞)에 속하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혼성어 ‘morho’는 (17라)와 같이 ‘苜蓿+orho’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18) jefohon (蔗子)
가. 『만독사전』(2007): 蔗 + jofohon(유자)
나. 『어제증정청문감』: jefohon
tubihe i gebu. hengke i gese amba. banin jofohon i adali. 〈권 S3:13b〉
(과일 이름이다. 참외와 같은 크기이다. 모양은 유자와 같다.)
다. 『交州記』[31]: 蔗子, 如瓜大, 亦似柚.
자자, 크기는 참외만하며 모양은 유자와 비슷하다.
라. 蔗子 + jofohon(유자)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jefohon’를 ‘蔗(zhè)+jofohon‘로 분석하였는데, 선행 형성어 ‘蔗[32]’는 ‘사탕수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어제증정청문감』에서 풀이된 ‘jefohon’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30) 한편 『訓蒙字會』에서도 ‘苜蓿’ 2자를 하나의 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苜蓿一名鶴頂草(‘목숙’은 일명 ‘학정초’이다.)
31) 『齊民要術・卷十』: 劉欣期《交州記》曰 : “蔗子, 如瓜大, 亦似柚.(자자, 크기는 참외만하며 모양은 유자와 비슷하다.)” 해당 용례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를 참고하였다.
32) 『說文解字』: “蔗, 藷蔗也.(‘蔗(저)’는 ‘藷蔗[저저, 사탕수수]’이다.) ”

있다. 한편 『齊民要術』에서 인용한 유흔기(劉欣期)의 『交州記』에서는 영남(岭南) 지구의 사물에 대해 소개하면서 '蔗子'에 대하여 "蔗子, 如瓜大, 亦似柚.(자자, 크기는 참외만 하며 모양은 유자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혼성어 'jefohon'는 (18라)와 같이 '蔗子+jofohon'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19) farudai (發明. 상상의 새. 東方의 鳳)
가. 『만독사전』(2007): 發 + garudai(鳳)
나. 『어제증정청문감』: farudai
sunja ergi ba be dahame gebulehe garudai sunja bi. dergi ergi ngge be farudai sembi. 〈권S4:02b〉
(다섯 방위(方位)를 좇아 일컬은 봉(鳳,garudai) 다섯이 있다. 동쪽인 것을 發明(farudai)이라고 한다.)
다. 發明 + garudai(鳳)

(20) irudai (幽昌. 상상의 새. 北方의 鳳)
가. 『만독사전』(2007): 幽 + garudai(鳳)
나. 『어제증정청문감』: irudai
amargi ergingge be. irudai sembi. 〈권S4:03a〉
(북쪽인 것을 irudai(幽昌)라고 한다.)
다. 幽昌 + garudai(鳳)

(21) surudai (鷫鷞[33]. 상상의 새. 西方의 鳳)
가. 『만독사전』(2007): 肅 + garudai(鳳
나. 『어제증정청문감』: surudai
wargi ergingge be surudai sembi. 〈권S4:03a〉
(서쪽인 것을 鷫鷞(surudai)이라고 한다.)
다. 肅霜 + garudai(鳳)

(22) yurudai(玉雀. 상상의 새. 중앙의 鳳)

33) 鷫鷞: 『集韻』에 따르면 '숙(鷫)'은 '석(息)과 육(六)의 반절로 음이 '숙(肅)'이고 '상(鷞)은 '사(師)와 장(莊)의 반절로 음이 상(霜)이다.

가. 『만독사전』(2007): 玉 + garudai(鳳)
나. 『어제증정청문감』: yurudai
dulimbaingge be yurudai sembi. 〈권S4:03a〉
(가운데인 것을 玉雀라고 한다.)
다. 玉雀 + garudai(鳳)

(23)『說文解字』: 發明: 五方神鳥, 東方發明, 南方焦明, 西方鸛鶇, 北方幽昌, 中央鳳皇.
(오방신조(五方神鳥)로 동방에 발명(發明), 남방에 초명(焦明), 서방에 숙상(鸛鶇), 북방에 유창(幽昌), 중앙에 봉황(鳳皇)이다.)
『人鏡經』: 凡五方之鳥皆似鳳, 而非也. 東方發明, 全身總青. 西方鸛鸛, 全身總白. 南方焦明, 全身總赤. 北方幽昌, 亦曰退居, 全身總黑. 中央鳥名玉雀, 亦曰鳳凰, 全身總黃.
(무릇 다섯 방위의 새는 모두 봉황과 비슷하나, 봉황은 아니다. 동방은 발명(發明)으로 온몸이 청색이고, 서방은 숙상(鸛鶇)으로 온몸이 백색이며, 남방은 초명(焦明)으로 온몸이 적색이고, 북방은 유창(幽昌)으로 또 퇴거(退居)라고도 부르며 온몸이 검은색이다. 중앙의 새는 옥작(玉雀)이라고 부르며, 또 봉황(鳳凰)으로 부르기도 하고 온몸이 황색이다.)

『만독사전』(2007)에서는 'farudai', 'irudai', 'surudai', 'yurudai' 등 '신조(神鳥)'들의 선행어를 각각 '發', '幽', '肅'. '玉' 등 1자 한자어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 1자 한자어의 의미를 통해서는 이들이 왜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의 뜻풀이와 『說文解字』와 『人鏡經』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들은 각각 다섯 방위를 대표하는 신조(神鳥)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성어 'farudai', 'irudai', 'urudai', 'yurudai'는 (19다)의 '發明+garudai', (20다)의 '幽昌+garudai', (21다)의 '肅霜+garudai', (22다)의 '玉雀+garudai'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옳다.

한편 『만독사전』(2007)에서는 '남쪽에 있는 신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girudai(焦明)'[34]는 혼성어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farudai',

34) 『御製增訂清文鑑』에서는 'girudai(焦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julergi ergingge be

'irudai', 'urudai', 'yurudai'와 같은 계열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어 관점으로 형성된 단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girudai' 역시 '焦明+garudai'로 형성된 혼성어로 다루고자 한다.

(24) tarfu (李父. 호랑이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targan(표범) + 父
나. 『어제증정청문감』: tarfu
tasha i encu gebu. 〈권S4:35b〉
호랑이의 다른 이름이다.
다. 『方言』: 虎, 陳魏宋楚之間或謂之李父, 江淮南楚之間謂之李耳, 或謂之於菟. 自關東西或謂之伯都.
(호랑이를 진(陳)과 위(魏), 송(宋), 촉(楚) 지역에서는 이부(李父)라고 부른다. 장강-회하 이남 남촉(南楚)에서는 李耳(이이)라고 부르고, 또는 어도(於菟)라고도 부른다. 관동, 관서지역에서는 또는 백도(伯都)라고도 부른다.)
라. targan(표범) + 李父

『만독사전』(2007)에서 'tarfu'를 혼성어로 판단하고 'targan+父'로 분석하였으며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tarfu'를 'tasha i encu gebu. (호랑이의 다른 이름이다.)'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父'가 왜 이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方言』에서 호랑이의 여러 별칭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虎, 陳魏宋楚之間或謂之李父(호랑이를 진(陳)과 위(魏), 송(宋), 촉(楚) 지역에서는 이부(李父)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혼성어 'tarfu'는 (24라)와 같이 만주어 'targan'과 한어 '李父'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2) 만주어 형성어 누락

『만독사전』(2007)에서 혼성어의 만주어 형성어로 제시한 것들 중에는 단어가 아니라 구를 형성어로 보아야 하는 예들이 다수 존재한다.

---

girudai sembi. 〈권S4:03a〉 (남쪽의 것을 girudai (焦明)라고 한다.)

〈표 3〉『만독사전』(2007)의 만주어 형성어 누락 표제어 목록 및 형성어

| 표제어 | 『만독사전』(2007)의 분석 | 본고의 분석 |
|---|---|---|
| gungkeri (玉蘭花) | gu+šungkeri | gu+šungkeri ilha |
| mungkeri (木蘭花) | moo+šungkeri | moo+šungkeri ilha |
| juturi (夏鳳) | juwari+turi | juwari+turi cecike |
| nituri (桑鳳) | nimalan+turi | nimalan+turi cecike |
| niojan (오리의 일종) | niyo+ija | niyo+ija niyehe |
| musiha (떡갈나무) | muyari+usiha | muyari+mase usiha |
| irmu (메추라기의 별명) | irgece+mušu | irgece niyehe+mušu |

〈표 3〉은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가운데 만주어 형성어가 누락된 표제어에 대하여 본고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3〉에 제시된 표제어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5) gungkeri/gungkeri ilha (玉蘭花)
가. 『만독사전』(2007): gu(玉) + šungkeri(우아한)
나. 『어제증정청문감』: gungkeri ilha
fuldun fuldun i banjimbi. ilha uyun fiyentehe. boco šahūn bi me niowanggiyan. emu gargan emte ilha ilambi hethe ci abda ha tucimbi. šungkeri ilha[35] i gese wangga. 〈권29:48a〉
(더미더미로 난다. 꽃잎이 아홉 가닥으로 색은 옅은 녹색이다. 꽃이 한 가지에 한 송이씩 핀다. 꽃받침에서 꽃잎이 난다. 난초와 같이 향기롭다.)
다. gu(玉) + šungkeri ilha(蘭花)

(26) mungkeri/mungkeri ilha (木蘭花)

35) 『御製增訂清文鑑』에서는 'šungkeri ilh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 하였다. abdaha emu juwe jušuru golmin. duin forgon enteheme niowanggiyan ilha sohokon niowanggiyan fiyentehe golmishūn šolonggo. wa sur sembime nemeyen. 〈권29:36a〉 (잎은 1-2尺 길이로, 사계절 계속 초록색이고 꽃은 담황색이다. 초록색 잎은 길고 뾰족뾰족하며 냄새는 그윽하고 온화하다.)

가. 『만독사전』(2007): moo(木) + šungkeri(우아한)
나. 『어제증정청문감』: mungkeri ilha
moo i cikten abdaha seri. ilha šu ilhai adali bime. wa šungke ri ilhai gese wangga. jilha suwayan duin biyade ilambi. usener akū. 〈권29:36a〉
(나무의 줄기와 잎은 성기다. 꽃은 연꽃과 비슷하며 냄새는 난초와 같이 향기롭다. 꽃술은 노랗고 4월에 피며 열매는 맺지 않는다.)
다. moo(木) + šungkeri ilha (蘭花)

『만독사전』(2007)에서는 (25)의 'gungkeri(玉蘭)'와 (26)의 'mungkeri(木蘭)'의 후행 형성어를 '우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šungkeri'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gungkeri(玉蘭)'와 'mungkeri(木蘭)'는 모두 목련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wa šungkeri ilhai gese wangga(냄새는 난초와 같이 향기롭다)'라고 풀이하였다. 한편 또 'šungkeri ilha'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wa sur sembime nemeyen.(냄새는 그윽하고 온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gungkeri(玉蘭)'와 'mungkeri(木蘭)'의 후행 형성어는 'šungkeri'가 아닌 'šungkeri ilha'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juturi (夏鳳)
가. 『만독사전』(2007): juwari(여름) + turi(콩)
나. 『어제증정청문감』: juturi cecike
yacin ūn cecike i encu gebu. 〈권S4:25a〉
(콩새의 다른 이름이다.)
다. juwari(여름) + turi cecike(콩새)

(28) nituri/nituri cecike (桑鳳)
가. 『만독사전』(2007): nimalan(桑树, 뽕나무) + turi(콩)
나. 『어제증정청문감』: nituri cecike
ūn cecike i encu gebu. 〈권S4:25a〉
(콩새(되새)의 다른 이름이다.)
다. nimalan(桑树, 뽕나무) + turi cecike (콩새)

(29)『어제증정청문감』: turi cecike (梧桐雀, 콩새)
beye i boco fulenggi. uju asha uncehen de yacin boco bi. engge muwa bime suwayan. 〈권30:25a〉
(몸의 색은 잿빛이고 머리와 날개, 꼬리에 흑청색이 있다. 부리가 길며 노란 색이다.)

(27)의 'juturi(夏鳳)'와 (28)의 'nituri(桑鳳)'는 참새목 콩샛과에 속하는 철새이다. 하지만『만독사전』(2007)에서는 이들의 후행 형성어로 'turi'만을 제시하고 있다. 'turi'는 '콩'이라는 의미를 지닌 만주어 단어로,『어제증정청문감』의 'juturi'에 대한 뜻풀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참새목'에 속하는 다른 혼성어의 분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36] 예문 (2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어제증정청문감』에서의 'turi cecike'에 대한 풀이를 참고하면 'juturi(夏鳳)'와 'nituri(桑鳳)' 의 후행 형성어는 'turi(콩)'보다 'turi cecike(콩새)'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0) niojan (水葫蘆. 오리의 일종)
가.『만독사전』(2007) : niyo(늪) + ija (소등에)
나.『어제증정청문감』: niojan niyehe
uthai ija niyehe sere gisun. 〈권30:17b〉
(곧 ija niyehe(水葫蘆)라는 말이다.)
다.『어제증정청문감』: ija niyehe
banin socili de adali bime umesi ajige yali umesi amtangga w esihun. 〈권30:17b〉
(모습은 들오리와 비슷하고 매우 작으며 고기는 매우 맛있으며 최고이다.)
라. niyo(늪) + ija niyehe(水葫蘆)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niojan'를 'niyo+ija'로 분석하였다. 후행 형성어 'ija'는 '등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만주어 단어로 그 의미는 '소

36) 가령 참새목에 속하는 개똥지빠귀와 닮은 'aisuri(金眼)'과 같은 경우,『만독사전』(2007)에서는 'aisin(金)+turi cecike'로 분석하였다.

나 말과 같은 가축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 곤충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ija'는 혼성어 'niojan'와는 관련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niojan'는 'ija niyehe(水葫蘆)'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iojan'의 후행 구성 요소는 'ija(등에)'보다 'ija niyehe(水葫蘆)'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1) musiha (櫟木, 떡갈나무)
가. 『만독사전』(2007): muyari(용안) + usiha(별)
나. 『어제증정청문감』: musiha moo
den juwe ilan juda funcembi. abdaha silkari moo i abdaha i a dali. ilha suwayan faha mase muyari i gese. 〈권S3:22a〉
(높이는 2-3丈 남짓하다. 잎은 저목(櫧木)의 잎과 비슷하다. 꽃은 노란색이고 씨는 荔枝와 같다.)
다. 『어제증정청문감』: mase usiha
moo de banjire tubihe i gebu. notho mangga faha i yali šeye n. notho be hūwalafi faha be jembi. 〈권28:40a〉
(나무에 나는 과일의 이름이다. 껍질이 딱딱하고 씨의 살은 새하얗고, 껍질을 깨서 씨를 먹는다.)
라. muyari(용안) + mase usiha(호두)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musiha'를 'muyari+usiha'로 분석하였는데, 'usiha'는 '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왜 이 단어가 떡갈나무를 나타내는 혼성어 'musiha'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musiha moo'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faha mase muyari i gese. (씨는 荔枝와 같다.)"고 하였고, 『清文総彙』에서는 'musiha moo'를 "櫟木高二三丈葉如櫧葉花黃核如核桃(櫟木[떡갈나무]의 높이는 2~3 丈이고, 잎은 櫧[종가시나무]의 잎과 비슷하며 꽃은 노란색이고, 씨는 核桃[호두]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씨는 호두와 같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musiha'의 씨는 호두(mase usiha)나 여지(mase muyari)와 같이 딱딱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의 뜻풀이와 혼성어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면, 'musiha'는 (31라)처럼

‘muyari+mase usiha’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irmu (鷁. 메추라기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irgece + mušu(메추라기)
나. 『어제증정청문감』: irmu
mušu i encu gebu. 〈권S4:27a〉
(메추라기의 다른 이름이다.)
다. 『어제증정청문감』: irgece niyehe
ijifun niyehe be inu irgece niyehe seme hūlambi. 〈권30:17b〉
(원앙새를 또한 계칙(鸂鶒[37])이라 한다.)
라. irgece niyehe(계칙) + mušu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irmu’를 ‘irgece+mušu‘로 분석하였는데, 선행 구성 요소 ‘*irgece’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불투명하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irmu’를 “mušu i encu gebu.(메추라기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irmu’는 물새에 속하는 조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제증정청문감』의 〈鳥雀〉部에서 물새에 속하는 모든 어휘를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32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rgece niyehe’가 ‘원앙새의 일종’이며 물새과에 속하는 조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성어 ‘irmu’는 (32라)와 같이 ‘irgece niyehe+mušu’라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 3)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 누락

『만독사전』(2007)에는 2자 한자어로 분석되어야 할 한어 형성어가 1자 한자어로만 제시된 경우가 있고, 구로 분석되어야 할 만주어 형성어가 단어로 분석되어 있는 예가 일부 존재한다. 이는 의미적 관계나 뜻풀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적으로 비슷한 어휘를 선택하여 생긴 오류로 보인다.

37) 『漢語大詞典』: 鸂鶒: 水鳥名. 形似鴛鴦而稍大, 多紫色, 雌雄偶遊, 故謂之紫鴛鴦. (물새 이름으로 원앙새와 비슷하지만 조금 크다. 대부분이 보라색이고 雌雄이 함께 노닌다. 따라서 ‘紫鴛鴦’이라고도 부른다.)

〈표 4〉『만독사전』(2007)의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 누락 표제어 목록 및 형성어 분석

| 표제어 | 『만독사전』(2007)의 분석 | 본고의 분석 |
|---|---|---|
| furhun (오디새의 별명) | 鶝+indahūn | 鶝鴘+indahūn cecike |
| furhūn (오디새의 별명) | 服+indahūn | 服鶝+indahūn cecike |
| niyamju (諸懷) | niyaman+諸 | niyalma+諸懷 |

〈표 4〉는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가운데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가 모두 누락된 표제어에 대하여 본고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에 제시된 표제어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 furhun[38] (복비, 鶝鴘)
가. 『만독사전』(2007): 鶝 + indahūn(개)
나. 『어제증정청문감』: furhun cecike
indahūn cecike i encu gebu. 〈권S4:23a〉
(오디새의 다른 이름이다.)
다. 鶝鴘 + indahūn cecike

(34) furhūn(복복, 服鶝)
가. 『만독사전』(2007): 服(fú) + indahūn(개)
나. 『어제증정청문감』: furhūn cecike
fordan i fargi bade indahūn cecike be. furhūn cecike seme hūlambi. 〈권S4:23b〉
(관서(關西)의 땅에서는 오디새를 복복(服鶝)이라고 부른다.)
다. 服鶝 + indahūn cecike(오디새)

(35) 『方言』: 屍鳩, 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謂之鶝鴘. 自關而東謂之戴鴈, 或謂之戴鳻, 或謂之戴勝. 東齊吳揚之間謂之鴈. 自關而西謂之服鶝, 或謂之鶻鶝.

38) 胡增益, 앞의 글, 41면에서 만주어 혼성어의 의미적 특징 중, 음소가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 중 추가되는 음소에는 a, e, l, n, ng, r, s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furhun'과 같은 경우 '鶝鴘(fu bi)'에서 '鴘(bi)'가 절단된 후 후행 형성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혼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r'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urhūn' 역시 동일한 조어 관점에서 형성된 혼성어이다.

(시구(屍鳩), 연(燕)의 동북쪽과 조선의 열수(洌水) 지역에서는 복비(鶝鴀)라 한다. 관의 동쪽에서는 대임(戴鵀), 혹은 대분(戴鳻), 혹은 대승(戴勝)이라고 한다. 동제(東齊)와 오양(吳揚)지역에서는 임(鵀)이라 한다. 관의 서쪽지역에서는 복핍(服鶝)[39], 또는 핍핍(鵙鶝)이라 한다.)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furhun'과 'furhūn'를 각각 '鶝+indahūn'과 '服+indahūn'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후행 형성어인 'indahūn'는 '개'라는 의미를 지닌 만주어 단어로 해당 혼성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선행 형성어인 '鶝'과 '服' 역시 혼성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표제어 'furhūn cecike'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furhun'과 'furhūn'은 모두 'indahūn cecike(오디새)'의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urhun'과 'furhūn'의 후행 형성어는 'indahūn'보다 'indahūn cecike'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35)의 『방언(方言)』에는 시구(屍鳩)의 방언으로 '복비(鶝鴀)'와 '服鶝(복필)'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furhun'의 선행어는 '鶝鴀(복비)'로, 'furhūn'의 선행어는 '服鶝(복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두 혼성어는 방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6) niyamju (제회)

가. 『만독사전』(2007): niyaman(심장) + 諸(zhū)

나. 『어제증정청문감』: niyamju

amargi colhon de tucimbi. banin ihan de adalikan bime duin uihe niyalma i yasa ulgiyan i šan jilgan bigan i niongniyaha i guwendere adali. niyalma be jembi. 〈권S4:43b〉

(北嶽山에 나타난다. 모습은 소를 조금 닮았고, 뿔은 넷이며, 사람 눈에 돼지 귀를 가졌으며 소리는 기러기의 울음 소리와 같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다. 『北山經』: 北嶽之山, 有獸焉, 其狀如牛而四角, 人目彘耳, 其名曰諸懷, 其

39) '鶝'은 다음자이다. 『자림(字林)』에서 "鶝, 音逼, 又音福.('鶝'은 음이 핍(逼)이다. 또는 음이 복(福)이다)"라고 설명하였다.

音如鳴雁, 是食人.
(北嶽山에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소를 닮았고, 뿔은 넷이며, 사람 눈에 돼지 귀이다. 그 이름은 諸懷이며 그 소리는 기러기의 울음 소리와 같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 niyalma(사람) + 諸懷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niyamju'를 'niyaman+諸'로 분석하였다. 우선 후행 형성어 '諸'는 '여러, 모두'라는 의미를 지닌 1자 한자어로 해당 혼성어와는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선행 형성어인 'niyaman'도 역시 '심장', '마음', '중심', '어버이' 등의 의미를 지니는 만주어 단어로서 해당 혼성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40]

그런데 'niyamju'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amargi colhon de tucimbi. banin ihan de adalikan bime duin uihe niyalma i yasa ulgiyan i šan jilgan bigan i niongniyaha i guwendere adali. niyalma be jembi.(北嶽山에 나타난다. 모습은 소를 조금 닮았고, 뿔은 넷이며, 사람 눈에 돼지 귀를 가졌으며 소리는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같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北山經』에서 설명된 '제회(諸懷)'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niyamju'의 후행 형성어는 '諸'보다는 '諸懷'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주어 혼성어는 혼성어의 유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형성어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niyamju'의 선행 형성어는 'niyaman'보다 'niyalma'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4. 혼성어 분석 오류 유형(2): 잘못된 형성어 제시

### 1) 잘못된 한어 형성어 제시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의 한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예도 존재

40) 만주어 형성어 'niyaman'의 경우, 형성어의 분석 오류로 볼 수 있다.

한다.

〈표 5〉『만독사전』(2007)의 잘못된 한어 형성어 제시 표제어 목록 및 형성어 분석

| 표제어 | 『만독사전』(2007)의 분석 | 본고의 분석 |
|---|---|---|
| lorin(노새) | 騾+morin | 驢+morin |

(37) lorin[41](노새)
가.『만독사전』(2007): 騾(노새) + morin(말)
나.『어제증정청문감』: lorin
yalure ulha i gebu. eihen de adalikan. morin eihen ci fusemb i. 〈권31:31b〉
(타는 집짐승의 이름이다. 당나귀와 좀 닮았고 말과 당나귀로부터 번식한다.)
다.『說文解字』: 贏[42], 驢父馬母.
('贏(라), 驢[당나귀]가 父[아버지]이고 馬[말]이 母[엄마]이다.)
라. lorin: 驢(당나귀 려) + morin(말)

가령 '노새'를 의미하는 혼성어 'lolin'의 경우 언뜻 보면『만독사전』(2007)의 분석과 같이 '騾+ morin'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듯하나, 이에 대한『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이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rin(노새)'에 대한『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고려하면 노새는 말과 당나귀로부터 번식하는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혼성어 'lorin'은 '당나귀'를 의미하는 1자 한자어 '驢(려)'와 '말'을 의미하는 만주어 'morin'의 혼성어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說文解字』에서 설명된 '贏(라)'의 뜻풀이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41) 한편,『大淸全書』에는 또 '노새'라는 의미의 단어 'loose'가 수록되었는데 이는 중국어 '騾子(luo zi)'를 음차한 것으로 'lorin'과는 다른 조어 방식을 보여준다.
42) '贏(라)'는 '騾(라)'의 이체자이다.

## 2) 잘못된 만주어 형성어 제시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의 만주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예도 존재한다.

〈표 6〉『만독사전』(2007)의 잘못된 만주어 형성어 제시 표제어 목록 및 형성어 분석

| 표제어 | 『만독사전』(2007)의 분석 | 본고의 분석 |
|---|---|---|
| danggiri (쟁) | 鐺+kanggiri | 鐺+conggiri |
| tanggiri (鏜) | 鏜+kanggiri | 鏜+conggiri |
| longkon (징) | 鑼+tungkeri | 鑼+tungken |
| meisile (蜜蠟) | 蜜+shel | 密+boisile |
| dekdenggi (뜬 기름) | dekden+dedenggi | dekden+nimenggi |
| šositun (두더지) | šosin+muktun | šosihi+muktun |
| junggisun (난조의 별명) | junggin+dursun | junggidei+dursun |
| jungguhe (구관조의 별명) | junggin+kiongguhe | junggidei+kiongguhe |
| yarhacan (狡) | yarha+acan | yarha+alhacan |
| jušutu (梅桃) | jušuhun+tu | jušuhun+ toro |

〈표 6〉은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가운데 만주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표제어에 대하여 본고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에 제시된 표제어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8) danggiri (쟁,鐺)
가. 『만독사전』(2007): 鐺(dāng) + kanggiri
나. 『어제증정청문감』: danggiri
fila i gese ajige longkon be guwafu moo de lakiyafi forirengge be danggiri sembi. hūwašasa baitalambi. 〈권07:12b〉
(접시와 같은 작은 징을 막대기에 매달아 치는 것을 쟁(鐺)이라 한다. 승려들이 사용한다.)
다. 鐺 + conggiri

(39) tanggiri (鐺)
가.『만독사전』(2007): 鐺 + kanggiri
나.『어제증정청문감』: tanggiri
jiha fila i gese ajige longkon be simhun de ulifi forirengge be tanggiri sembi. 〈권07:25a〉
(구리 쟁반과 같은 작은 징을 손가락에 꿰어 치는 것을 tanggiri(鐺)이라 한다.)
다. 鐺 + conggiri

(40)『어제증정청문감』: kanggiri
horho i uce i yooselara ba i fejile sihin sele de ulifi hadaha teišun i ajige kūthūri be kanggiri sembi. 〈권25:04a〉
(장롱 문의 자물쇠 잠그는 곳 아래의 배목걸쇠에 꿰어 박는 구리로 된 작은 구름 무늬를 kanggiri(櫃門銅挑牌)라 한다.)

『만독사전』(2007)에서는 'danggiri'와 'tanggiri'의 후행 구성 요소를 모두 'kanggiri'로 분석하였다.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제증정청문감』에서 풀이된 'danggiri', 'tanggiri'와 'kanggiri'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kanggiri'는『어제증정청문감』〈器用〉類에서 나타나며 '장롱의 열쇠 구멍 아래에 구름 형태로 만들어 붙이는 구리 장식'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danggiri'와 'tanggiri'는 모두 〈樂器〉類에서 나타나며 '구리 쟁반과 비슷한 타악기'에 속한다.

이에 본고에서는『어제증정청문감』의 〈樂器〉類에서 '-nggiri' 형태를 가진 모든 어휘를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아래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nggiri'가 '구리로 만든 부딪쳐서 소리내는 타악기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어제증정청문감』: conggiri
teišun be hūntahan i gese arafi juwe gala de juwe be jafafi ishu nde conggibume guwemburengge be conggiri sembi. 〈권07:13a〉

(구리를 잔과 비슷하게 만들어 양손에 둘을 잡고 서로를 부딪쳐서 소리내는 것을 conggiri(星)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danggiri'와 'tanggiri'의 후행 형성어로는 'kanggiri'보다 'conggiri'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longkon (징, 鑼)
가. 『만독사전』(2007): 鑼 + tungkeri(북처럼 생긴 奇獸)
나. 『어제증정청문감』: longkon
teišun be dere obokū i adali bime delbin akū tūfi guwembum e forirengge be longkon sembi. 〈권07:12a〉
(놋쇠로 세숫대야같이 테두리 없이 만들어, 두드리거나 쳐서 소리나게 하는 것을 징이라 한다.)
다.『어제증정청문감』: tungken
forire kumun i agūra i gebu. muheliyen weren i juwe ergi de sukū burifi wecen kumun de guwembume tūrengge be tungken sembi. 〈권07:10b〉
(치는 음악 도구의(타악기의) 이름이다. 둥근 테두리 양쪽에 가죽을 붙이고 테두리를 음악 소리나게 치는 것을 tungken(북)이라고 한다.)
라. 鑼+tungken (북, 鼓.)

『만독사전』(2007)에서는 'longkon'을 '鑼+tungkeri'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증정청문감』에서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tungkeri'는 동물의 이름으로서 "banin tungken i gese. emu bethe.(모습은 북과 같고 발이 하나이다)"로 〈異獸〉라고 설명되어 있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의 'longkon'과 'tungken'의 풀이를 살펴보면 모두 〈樂器〉類에 속하는 타악기로 설명되었다. 한편 같은 타악기 계열의 'jungken(鍾)', 'kingken(磬)'에 대해 『만독사전』(2007)에서는 각각 '鐘+tungken', '磬+tungken'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longkon'은 (42라)와 같이 '鑼+tungken'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3) meisile (밀랍)
가. 『만독사전』(2007): 蜜 + shel(수정. 티벳트어)
나. 『어제증정청문감』: meisile
jakdan mooi šugi na de eyeme dosifi bakjakangge be meisile sembi. boco suwayan bime genggiyen miyamigan de baitalam bi. 〈권22:51b〉
(송진이 땅에 흘러 떨어져 굳어진 것을 밀랍이라 한다. 색은 노란색이고 밝으며 장식용으로 쓴다.)
다. boisile: jakdan mooi šugi na de eyeme dosifi bakjafi aniya goi dahangge be boisile sembi. boco suwayan. yaya miyamigan de baitalambi. 〈권22:51a〉
(송진이 땅에 떨어져 굳어지고 세월이 오래된 것을 호박(琥珀)이라 한다. 색은 노란색이다. 무릇 장식용으로 쓴다)
라. 蜜 + boisile(琥珀.)

'meisile(밀랍)'는 『만독사전』(2007)에서 '蜜+shel'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shel(水晶)'과 새로 형성된 혼성어 'meisile' 사이의 형태적 관계를 알기 어렵다. '琥珀(호박)'을 의미하는 만주어 'boisile'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고려하면 'meisile(밀랍)'의 형성어로 만주어 'boisile'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eisile'은 (43라)와 같이 한어 '蜜'과 만주어 'boisile'로 이루어진 혼성어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dekdenggi (浮油, 뜬 기름)
가. 『만독사전』(2007): dekden(일어섬, 興起) + dedenggi(부녀자가 경박한, 부박한.)
나. 『어제증정청문감』: dekdenggi
sile oilo. dekdehe nimenggi be. dekdenggi sembi. 〈권27:07a〉
(고깃국 표면에 뜬 기름을 dekdenggi (浮油) 라 한다.)
다. dekden(일어섬, 興起) + nimenggi(기름)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dekdenggi'를 'dekden+dedenggi'로 분석하고 있다. 'dekden'는 '일어나다, 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dedenggi’는 ‘여자가 경박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dekdenggi’에 해당되는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sile oilo dekdehe nimenggi be dekdenggi sembi. (고깃국 표면에 뜬 기름을 dekdenggi (浮油) 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dekdenggi’에 대한 『만독사전』(2007)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dekdenggi’의 후행 형성어는 ‘부녀자가 경박한’이라는 의미의 ‘dedenggi’보다는 ‘기름’이라는 의미의 ‘nimenggi’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šositun (두더지)
가. 『만독사전』(2007): šosin(문의 장부.) + muktun(두더지)
나. 『어제증정청문감』: šositun
muktun i encu gebu. 〈권S4:38a〉
(두더지의 다른 이름이다.)
다. 『大清全書』: šosihi: 大尾鼠. (족제비와 비슷한 쥐) 〈07:41a5〉
라. šosihi + muktun(두더지)

‘šositun’에 대하여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muktun i encu gebu. (두더지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이 같은 풀이는 『만독사전』(2007)의 ‘šosin+muktun’라는 분석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의 장부’라는 의미의 만주어 ‘šosin’과 혼성어 ‘šositun(두더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성도 찾아 볼 수 없다. 『대청전서』에서는 ‘šosihi’를 ‘大尾鼠[족제비와 비슷한 쥐]’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혼성어의 형태적 및 의미적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šositun(두더지)’의 선행어는 ‘문의 장부’라는 의미의 ‘šosin’보다는 ‘족제비와 비슷한 쥐’의 의미를 나타내는 ‘šosihi’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junggisun (雞趣)
가. 『만독사전』(2007): junggin(錦, 비단) + dursun (모양, 모습)
나. 『어제증정청문감』: junggisun
garunggū i encu gebu. banin junggidei de dursuki. 〈권S4:03a〉

(난조(鸞鳥)의 다른 이름이다. 용모가 꿩과 유사하다.)
다. junggisun: junggidei(꿩) + dursun (모양, 모습)

(47) jungguhe (多花子. 구관조의 별명)
가. 『만독사전』(2007): junggin(비단) + kiongguhe
나. 『어제증정청문감』: jungguhe
alha kiongguhe i encu gebu. 〈권S4:18b〉
(화팔가[花八哥, 앵무새]의 다른 이름이다.)
다. junggidei(꿩) + kiongguhe

『만독사전』(2007)에서는 'junggisun(雞趣)'의 선행 형성어를 '비단'이라는 의미의 'junggin'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형태적으로 보았을 경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junggisun'은 'banin junggidei de dursuki. (용모가 꿩과 유사하다.)'로 설명되어 있다. 'junggisun(雞趣)'과 'junggin' 사이에는 의미적으로 어떠한 관련성도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선행 형성어를 'junggin'으로 파악한 것은 잘못된 분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만독사전』(2007)에서는 'jungguhe(多花子)'의 선행 형성어 역시 'junggin'으로 분석하였다. 이 또한 형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제증정청문감』에서 'jungguhe(多花子)'에 대해 'alha kiongguhe i encu gebu. (앵무새의 다른 이름이다.)'와 같이 풀이한 것을 참고하면 오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junggisun(雞趣)'과 'jungguhe(多花子)'의 선행 형성어는 '비단'이라는 의미의 'junggin'보다는 '꿩'이라는 의미의 'junggidei'로 파악하는 것이 형태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8) yarhacan (교, 狡)
가. 『만독사전』(2007): yarha(표범) + acan (만남; 연합...)
나. 『어제증정청문감』: yarhacan
banin jilgan gemu indahūn de adali bime yarha i bederi ihan i uihe erebe sabuci ambula bargiyambi. 〈권S4:41a〉

(모습이나 소리는 모두 개를 닮았으나 표범의 무늬와 소의 뿔이다. 이 짐승을 보면 많이 풍년이 든다.)

다. yarha + alhacan(얼룩무늬, 羅紋)

『만독사전』(2007)에서는 혼성어 'yarhacan'을 'yarha+acan'으로 분석하였는데, 후행 형성어 'acan'은 '만남', '합계',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만주어이다. 『만독사전』(2007)의 분석으로는 이 단어가 왜 혼성어의 형성어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어제증정청문감』의 'yarhacan'에 대한 뜻풀이에서 "yarha i bederi ihan i uihe.(표범의 무늬와 소의 뿔이다.)" 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주어 혼성어는 혼성어의 유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형성어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과 혼성어 'yarhacan'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고려하면 '얼룩무늬'의 의미를 나타내는 'alhacan'이 '결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acan'보다 후행어로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성어 'yarhacan'은 (48다)와 같이 'yarha+alhacan'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49) jušutu (梅桃)

가. 『만독사전』(2007): jušuhun(시큼한) + tu

나. 『어제증정청문감』: jušutu

fugiyan i heo guwan hiyan i bade tucimbi. tubihe ilan jurhun amba hibsu de gidafi jembi. 〈권S3:07b〉

(福建의 侯官縣에서 난다. 과실의 크기는 3寸 정도이고 꿀에 담궈 먹는다.)

다.『齊民要術・果蔬』引沉瑩『臨海異物志』: "梅桃子, 生晉安侯官縣. 一小樹得數十石. 實大三寸, 可蜜藏之." 一本作 "楊桃子".

라. jušuhun+ toro(복숭아)

『만독사전』(2007)에서는 앵두를 의미하는 혼성어 'jušutu'를 'jušuhun+tu'로 분석하였다. 만주어에서 'tu'는 어근의 의미적 특징을 나타내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 '시큼하다'는 의미의 'jušuhun'과 'tu'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한 것은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jušutu'는 '福建의 侯官縣에서 나는 과일'로 '蜜餞[43]'의 형식으로도 먹는다고 하였다. 한편 『齊民要術·果蔬』에서 인용한 沉瑩의 『臨海異物志』에서는 "梅桃子, 生晉安侯官縣. 一小樹得數十石.實大三寸, 可蜜藏之.('梅桃子(매도자)', 진안(晉安)의 후관현(侯官縣)에서 나며 작은 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수십 개 열리고 크기는 3촌 정도이며 꿀에 절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면 'jušutu'의 후행 형성어는 명사 파생 접미사 'tu'보다 복숭아[桃子]의 의미를 나타내는 'toro'가 보다 적절해 보인다.

## 5. 맺음말

만주어 혼성어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주어 혼성어의 전체 목록과 그 기원이 되는 형성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있다. 『만독사전』(2007)에는 만주어 혼성어에 대해 그 기원이 되는 형성어가 '+' 기호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목록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주어 혼성어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사전 편찬자의 판단 오류로 인해 잘못 분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정밀하게 고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독사전』(2007)에 혼성어로 분류한 표제어들을 모두 검토하여 분석 오류로 생각되는 혼성어의 목록과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정밀한 만주어 혼성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독사전』(2007)의 혼성어 분석 오류는 대체로 그 형성어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와 잘못된 형성어를 제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형성어 일부를 누락한 오류는 한어 형성어 일부를 누락한 경우와 만주어 형성어 일부를 누락

43) '蜜餞'은 과일을 꿀에 절여 먹는 것으로, 중국 당나라 때에는 과일을 朝廷에 進貢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송나라 때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각종 과일이나 계화꽃을 꿀이나 설탕에 절여서 먹었다.

한 경우, 한어 및 만주어 형성어 모두를 누락한 경우로 나뉜다. 한어 형성어를 누락한 경우는 'tildargan'을 '題肩+baldargan'이 아니라 '題+baldargan'로 분석한 것과 같이 2자 한어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을 1자 한어로만 분석한 경우가 많고, 만주어 형성어를 누락한 경우는 'gungkeri'를 'gu+šungkeri ilha'가 아니라 'gu+šungkeri'로 분석한 것과 같이 구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단어로 분석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또 한어와 만주어 형성어를 모두 누락한 경우는 'furhun'과 같이 '鶐鴴+indahūn cecike'가 아니라 '鶐+indahūn'로 분석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잘못된 형성어를 제시한 경우는 한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와 만주어 형성어를 잘못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lorin'은 '騾+morin'가 아니라 '驢+morin'로, 'danggiri'는 '鐺+kanggiri'가 아니라 '鐺+conggiri'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분석은 형성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소리의 유사성만을 우선시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혼성어와 그 형성어에 대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올바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만주어 혼성어 연구에 있어서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는 크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참고문헌

『御製增訂淸文鑑』, 淸乾隆 36年(1771年) 武英殿刻本, 滿漢合壁, 北京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訓蒙字會』, 檀國大學校出版部, 1971.
『事物異名錄』, 上海古籍出版社, 1995.

이훈,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1993.
Hauer, E.,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Otto Harrassowitz, 1952-1955.
_____,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weiterte Auflage, herausgegeben von Oliver Corff, Wiesbaden: Harrassowitz. 2007.

김동소, 「錫伯族 言語 硏究 序說」, 『알타이학보』 6, 한국알타이학회, 1996, 1-24면.
김양진, 「만주어사전 『어제청문감 (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33-66면.
노명희,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 국립국어연구원, 2006, 31-46면.
_____, 「외래어 단어 형성」,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2009, 5-29면.
_____,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55-281면.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 2008, 111-128면.
이주희, 「혼성어의 특징에 대한 재고」.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6, 한국음운론학회, 2020, 127-158면.
이찬영,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최계영, 「『御製增訂淸文鑑』 신규 표제어 연구」, 『알타이학보』 27, 한국알타이학회, 2017, 25-50면.
황진영, 「현대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安雙成, 「滿語構詞法」, 『알타이학보』 9, 한국알타이학회, 1999, 167-190면.
杜佳烜・唐千航, 「滿語截搭構詞法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 2021, 30-35면.
胡增益, 「滿語縮合詞研究」, 『民族語文』 3, 2004, 38-46면.
Ingo Plag,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2003.
Vira, R. ed., *A Pentaglot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in Sanskrit, Tibetan, Manchurian, Mongolian and Chinese,*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61.
Walravens, H., "Zu zwei Katechismen in mandjurischer Sprache", *Monum.enta scrica* Vol.XXXI, No.19, 1977, pp.521-549.
_____, *Buddhist Literature of the Manchus: A catalogue of the Manchu holdings in the Raghu Vira Collection at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The Academy, 1981.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zhs(2021.06.30. 검색).

【Abstract】

## A study on errors in the analyses of Manchu blends by Hauer(2007)

Nam, Hyang-lim* · Moon, Hyun-Soo** · Koh, Kyeong-Jae***

In this paper, we reviewed all the headwords classified as blends in Hauer(2007)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and presented a list of blends thought to be analytical errors and the correct analysis results, so that the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Manchu blends research.

Errors in the analysis of blends in Hauer(2007) may be devided into cases where the part of the formative words is omitted and where the formative words are incorrectly presented due to incorrect analysis.

The cases where the part of the formative words is omitted are divided into three cases. In the first case where the omitted part of the formative word is Chinese, what should be analyzed as two-letter Chinese is frequently analyzed only as one-letter Chinese. For example, “tildargan” is analyzed not as “題肩+baldargan” but as “題+baldargan”. In the second case where the omitted part of the formative word is Manchu, what should be analyzed as phrase is frequently analyzed as words. For example, the blend “gungkeri” is analyzed as “gu+šungkeri”, not as “gu+šungkeri ilha”. There is also a third case where the omitted parts of the formative words are both Chinese and Manchu. In this case, the blend “furhun” is analyzed as “鶻+indahūn”, not as “鶻鴉+indahūn cecike”.

The cases where the formative word is incorrectly presented are divided into two cases), where Chinese formative words were incorrectly presented or Manchu formative words were incorrectly presented. For example, “lorin” should be analyzed as “驢+morin” rather than “騾+morin”, “danggiri” should be analyzed as “鐺+conggiri” rather than “鐺+kanggiri”.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Hee Univ.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
*** Researcher, Center for Manchu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These incorrect analyses are thought to be the result of prioritizing only the similarity of sounds without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formative words. In most cases, correct analysis could be derived by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of『御製增訂淸文鑑(Yuzhi Zengding Qingwenjian)』about blends and their formation words.

Keywords: Manchu language blends, Hauer(2007), incorrect analysis,『御製增訂淸文鑑(Yuzhi Zengding Qingwenjian)』, formative words.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9.